다랑이·따오기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배웠다

지난 15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다랑이논 일대에서 진행된 광주일보 주최 ‘일본 세계중요농업유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남지역 공무원 40여명이 다랑이논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하고 있다. /日 노토반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노토반도, 농사 체험 제공해 계단식 논 보존
사도시마 ‘따오기 농법’ 인근지역 친환경 확대
10여개 마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 수익

지난 15일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의 다랑이논. 전남 일선 시·군의 농업유산과 농업 분야 공무원 40여명은 모내기를 앞두고 논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 농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2011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은 외지 사람들이 노는 땅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주일보 주최로 진행된 ‘일본 세계중요농업유산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들 공무원들은 도시민들에게 논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농업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노토반도의 시스템을 눈여겨봤다.

이곳에서는 도쿄 등지의 학교와 사회단체 등 300여 곳이 계단식 논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다. 땅 주인은 이들로부터 일 년에 2만엔(한화 24만원 가량)을 받고, 평상시에 물관리를 해주고 있다.

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로 노토반도 인근 마을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늘고, 민박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등 농가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도 이들 공무원들의 관심사였다.

이날 전남 공무원들에게 현장 설명을 한 이시카와 현청 관계자에 따르면 노토반도 인근 10여개 마을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고, 다양한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47곳의 민박을 운영하면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현청도 계단식 논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전남도 농업정책과 최병용 계장은 “도시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농업유산을 보존하는 방식은 전남 지역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면서 “농업유산이 단순히 농산물 판매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관광 상품과 연계되는 점 등도 전남으로서는 의미 있는 대목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국내 첫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일부는 농사를 짓지 않아 논두렁이 무너져내리는 등 훼손되고 있다. 또 전남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본 농촌도 극심한 고령화 현상을 빚고 있으며, 농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이를 일부 극복하고 있었다. 노토반도 인근의 노토쵸는 2010년 현재 고령화율(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6.9%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하지만 세계농업유산을 지키기 위해 농사를 직접 짓겠다는 사람들이 몰려 현재는 300여개 단체가 계단식 논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고, 인근 민박집에도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도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

학생들의 단체 참여도 늘고 있어 농업유산 보존 프로그램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 전략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어 이틀 후, 일본의 또 다른 세계중요농업유산 중 한 곳인 니가타현 사도가시마(사도시)에서 계속된 연수에서도 참가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사도가시마는 따오기를 복원한 곳으로 유명하다. 흔히 말하는 이곳의 ‘따오기 논’은 따오기가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논의 10%가량을 비워두는 것을 말한다. 논 일부에 모를 심지 않고, 따오기가 헤엄을 치면서 개구리, 우렁이, 가재 등을 잡아먹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 2006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사도가시마가 지정된 것은 이 같은 ‘아름다운 공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연수 참가자들은 따오기 복원센터와 따오기 논을 둘러보며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생물 다양성’의 소중함을 목격했다. 또 사도가시마 쌀은 다른 지역보다 60㎏당 1만7000원 가량 비싸게 팔리고 있고,‘따오기 우유’ 등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현청 관계자의 설명을 귀담아 들었다.

나주시청 농산물유통과 김혁 과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술과 우유,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한 ‘따오기 마케팅’을 눈여겨봤고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농업유산은 단순히 오래된 곳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종과 특이한 농법 등도 제대로 홍보하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 공무원들은 니카타현의 농촌 마을을 돌며 친환경 농법 등을 둘러봤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물관리를 하는 논과 친환경을 통해 기업화에 성공한 일본의 농원을 돌며, 전남지역 농업유산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편 광주일보 주최로 지난 14일~18일 일본 노토반도와 사도가시마 일대에서 진행된 ‘일본 세계중요농업유산 연수’ 프로그램에는 40명이 참가해 현장 답사와 토론 등을 진행했다.

/일 노토반도=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